전자신문 | etnews

전국

“5극3특 동남권, 수요 기반 해양ICT융합 고도화 필요”

발행일 : 2026-10-22 11:38

전자신문을 선호 매체로 추가

'BITC 2026' 패널 토의 공통 견해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해양벨트 기반 미래 발전방안 논의



'BITC 2026' 패널 토의 모습(왼쪽부터 유시안 책임, 김현우 책임, 이희수 PD, 박수현 특임교수, 김세현 본부장, 임근태 센터장)

“기후·국제 정세 변화로 해양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남권은 조선·해양·해운·항만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해 고도화하면서 기후·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도 도모해야 한다.”

최근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 혁신클러스터 기술 컨퍼런스(BITC 2026)' 패널 토의 참석자들이 내놓은 공통된 의견이다.

'BITC 2026'은 부산지역산업진흥원과 한국해운협회 부산본부가 'K-조선해양해운항만, ICT를 융합해 동남권 발전을 도모하다'를 주제로 진행한 컨퍼런스다. 조선·해양·해운·항만산업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ICT융합산업 육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박수현 영산대 극지연구소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패널 토의는 △동남권 산업 연계와 수요기반 협력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X)을 활용한 해양ICT융합 고도화 방안 △동남권 해양ICT 협력 및 실행 전략 등 3개 소주제를 논의했다.

이희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해양 PD는 “동남권 중소 해운선사를 포함한 실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우선 발굴해 동남권 연구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개발 과제로 구체화해 나가자”며 수요자인 해운선사의 운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해운 기술을 우선 추진 분야로 제시했다.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본부장은 “해운 인공지능전환(AX)은 선사와 선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동시에 중소 해운선사가 도입하기 쉽고 도입 결과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근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은 울산에 구축된 자율운항실증센터와 부산의 항만 데이터·물류 수요를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임 센터장은

“부산-울산 실증해역 연계, 피더급 컨테이너 등 중소 해운선사를 활용한 동남권 자율운항 실증 레코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시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R&D) 완료 후 가장 큰 장벽은 실제 선박 탑재와 운항실적 확보”라며 “동남권 수요처 발굴 및 실제 운항선박 활용, 선사 인센티브 지원 등 R&D 결과물을 실증 상용화하는 후속 사업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우 중소조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해 “중소 해운선사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저비용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과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수현 특임교수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수요 발굴과 기술개발 및 실증 단계에서 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조하고 “해운선사, 조선소, 조기자재,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동남권 해양ICT융합산업 발전과 지역산업 진흥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



임동식 기자 기사 더보기>

- AI 시대 생존 지침서 '그레이트 리셋 5.0' 화제

알고보니 간단한 '전립선 비대증' 해결 방법

12kg 감량 후기? 젊었을때 처럼 하면 못 빼요

Copyright © Electronic Times Internet. All Rights Reserved.